

윤리 지문 실전 문제

책임의 경계선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윤리학은 인간의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을 탐구한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두고 “옳다”, “그르다”, “훌륭하다”, “비난 받을 만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기준을 앞세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리 지문을 읽을 때는 먼저 그 입장이 무엇을 기준으로 행위를 판단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윤리 이론을 크게 나누면 의무론, 목적론, 덕 윤리를 들 수 있다. 의무론은 행위가 지켜야 할 원칙과 의무를 중시한다. 어떤 행위가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해도, 그 행위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에 어긋나거나 타인을 단순한 수단으로 대한다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의무론은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보다 “그 행위가 어떤 원칙을 따랐는가”를 먼저 묻는다.

반면 목적론은 행위가 실현하는 목적이나 결과를 중시한다.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어떤 상태를 만들어 내는지,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공리주의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옳다고 본다. 다만 목적론 안에서도 판단 방식은 단순하지 않다. 개별 행위가 당장 낳는 결과를 중시할 수도 있고, 모두가 따를 규칙이 장기적으로 낳는 결과를 중시할 수도 있다. 후자의 관점을 규칙 공리주의라고 한다.

덕 윤리는 앞의 두 입장과 다른 방향에서 접근한다. 의무론과 목적론이 주로 개별 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덕 윤리는 평가의 초점을 행위에서 행위자로 옮긴다. 즉 “이 행위가 어떤 원칙을 따랐는가”, “이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만 묻지 않고, “이 행위는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가”를 묻는다. 그래서 덕 윤리에서는 용기, 절제, 지혜, 정의, 관대함과 같은 성품과 삶 전체의 태도가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친구를 해치려는 사람에게 쫓기고 있고, 그 친구가 내 집에 숨어 있다고 하자. 잠시 뒤 추격자가 와서 친구의 위치를 묻는다. 이때 우리는 보통 거짓말을 해서라도 친구를 보호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 사례를 단순히 “목적론은 거짓말을 허용하고, 의무론은 거짓말을 금지한다”고 정리하면 곤란하다. 윤리 이론의 차이는 결론보다 질문의 방향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목적론은 먼저 그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묻는다. 친구를 보호하고 더 큰 해악을 막는다면,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규칙 공리주의자는 모든 사람이 곤란한 상황마다 거짓말을 쉽게 허용하는 규칙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해치지 않는지도 함께 따질 수 있다. 즉 목적론이라고 해서 언제나 당장의 좋은 결과만 보는 것은 아니다.

의무론은 그 행위가 어떤 원칙과 의무에 맞는지 묻는다. 거짓말은 일반적으로 진실성의 의무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부당한 폭력에 협조하지 않을 의무, 타인을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지 않을 의무도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의무론에서도 단순히 “거짓말이므로 무조건 금지”라는 결론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원칙이 문제 되고, 그 원칙들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덕 윤리는 그 거짓말이 어떤 성품에서 나온 것인지를 본다. 그것이 자기보호를 위한 비겁함에서 나온 것인지, 친구를 지키려는 용기와 의리,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에서 나온 것인지가 중요하다. 덕 윤리의 관점에서는 같은 거짓말이라도 행위자의 성품과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의무론, 목적론, 덕 윤리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행위를 평가한다. 의무론은 원칙과 의무를, 목적론은 결과와 목적을, 덕 윤리는 성품과 행위자를 중시한다. 따라서 윤리 지문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론이 어떤 결론을 낸다고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이 어떤 질문을 먼저 던지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윤리 판단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복잡해진다. 어떤 행위는 좋은 의도에서 나왔지만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반대로 좋지 않은 동기에서 나온 행위가 우연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나쁜 결과를 직접 의도한 경우와, 나쁜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예견했지만 그것을 직접 목적으로 삼지는 않은 경우도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말기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강한 진통제를 투여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약은 환자의 호흡을 약화시켜 생명을 단축시킬 위험을 함께 가진다. 이 경우 의사가 직접 의도한 것은 환자의 죽음인가, 아니면 고통 완화인가?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가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쁜 결과를 원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 지점에서 이중효과의 원리가 등장한다. 이중효과의 원리는 하나의 행위가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를 동시에 낳을 때, 나쁜 효과가 행위자의 직접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좋은 효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예견된 것인지를 구분하려는 원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결과와 의도의 관계를 더 정교하게 따지는 것이다. 나쁜 효과가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좋은 효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는 윤리적 평가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실제 윤리 판단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선행과 의무의 구분이다. 어떤 행동은 하면 훌륭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비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다면, 우리는 그를 훌륭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자기희생을 반드시 요구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하면 칭찬받을 만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는 어려운 행위를 초과 의무라고 한다.

초과 의무는 윤리 판단에서 중요한 경계선을 보여준다. “하면 좋은 일”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다르다. 남을 돕는 일은 도덕적으로 권장될 수 있지만, 모든 도움을 의무로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윤리 지문에서는 어떤 행위가 단순히 훌륭한 선행인지, 아니면 하지 않았을 때 비난받을 수 있는 의무인지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윤리적 구분은 법적 판단과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 물론 윤리와 법은 같은 것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아쉬운 행동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언제나 도덕적으로 떳떳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두 영역은 모두 인간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예컨대 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단순히 선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결과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이는 초과 의무와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하지 않은 행위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또한 법에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는 어떤 결과를 직접 원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사실상 용인하거나 감수한 경우에 문제 된다. 이는 이중효과의 원리와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나쁜 결과를 예상한 것과 그 결과를 받아들인 것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점에서 연결해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윤리 지문은 단순히 선악을 나누는 글이 아니다. 의무론, 목적론, 덕 윤리는 각각 원칙, 결과, 성품이라는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실제 판단에서는 의도와 결과, 예견과 감수, 선행과 의무의 경계가 함께 문제 된다. 이 경계선을 읽어낼 수 있다면, 윤리 지문은 막연한 철학 지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분석 가능한 글이 된다.

1.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윤리 이론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 배열한 뒤, 각 이론이 현대 법체계에 수용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윤리 판단의 대표적 기준들을 구분한 뒤, 실제 판단에서 생기는 복잡성을 제시하고 법적 개념과의 접점을 덧붙이고 있다.
- ③ 법적 책임의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윤리 개념을 재분류한 뒤, 초과 의무와 미필적 고의의 한계를 비판하고 있다.
- ④ 목적론과 의무론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덕 윤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법적 책임보다 도덕적 책임이 우선함을 논증하고 있다.
- ⑤ 윤리 판단에서 결과보다 의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뒤, 이중효과의 원리를 통해 목적론 전체를 반박하고 있다.

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무론과 목적론은 같은 행위에 대해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도 있지만, 그 결론을 정당화할 때 각각 원칙과 결과 중 무엇을 앞세우는지는 달라질 수 있다.
- ② 규칙 공리주의는 개별 행위의 당장 보이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일정한 규칙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함께 고려한다.
- ③ 덕 윤리는 행위자의 성품과 삶의 태도를 중시하지만, 그 성품은 구체적 상황에서 드러나는 판단과 행위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
- ④ 이중효과의 원리는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 먼저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좋고 나쁨을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맞추어 행위자의 의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 ⑤ 초과 의무와 부작위 책임은 모두 “하지 않음”과 관련되지만, 전자는 의무를 넘어선 선행의 문제이고 후자는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 문제와 연결된다.

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윤리 개념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규칙 공리주의는 규칙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의무론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그 정당화 근거가 장기적 결과에 있다는 점에서 목적론의 범주에 머무른다.
- ② 덕 윤리는 행위자의 성품을 보려 하므로, 어떤 행위가 실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평가에서 배제하고 행위자의 선의만을 우선한다.
- ③ 의무론은 원칙 충돌 상황에서도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아야 하므로,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할 의무는 진실성의 의무와 별도로 문제 될 수 없다.
- ④ 이중효과의 원리에서 나쁜 효과가 부수적으로 예견되었다면, 그 효과가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더라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 ⑤ 초과 의무가 의무를 넘어선 선행이라면, 특정 지위에 따른 보호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초과 의무 불이행으로 보아야 한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갑은 말기 환자 A의 극심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강한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이 약은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투여량에 따라 호흡 억제를 일으켜 A의 생명을 단축시킬 위험도 있었다. 갑은 그 위험을 알고 있었고, 권장 범위 안에서 투여량을 조절하며 A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였다. 그럼에도 A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을은 말기 환자 B를 돌보는 의료인이다. 을은 B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죽음이 고통을 끝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B의 사망을 앞당길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였다. 을은 겉으로는 고통 완화를 위한 처치였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B의 사망을 통해 고통을 끝내려 했다.

병은 안전 체험 시설의 책임자이다. 병은 시설의 와이어 일부가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았고, 행사를 중단하거나 장비를 교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병은 행사 취소에 따른 손해를 피하려고 운영을 계속했다. 병은 사고가 날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와이어가 끊어져 이용객이 크게 다쳤다.

- ① 갑의 행위는 나쁜 결과가 예견되었으므로, 윗글의 관점에서 곧바로 나쁜 결과를 직접 의도한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
- ② 을의 행위는 환자의 고통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윗글의 관점에서 이중효과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 ③ 갑과 을은 모두 약물을 투여했고 환자의 고통 완화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윗글의 관점에서 두 행위의 윤리적 구조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 ④ 병은 이용객을 직접 해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윗글의 관점에서 예견이나 감수의 문제와 연결해 평가할 수 없다.
- ⑤ 갑의 경우에는 나쁜 결과가 직접 목적이었는지 부수적으로 예견된 것인지가 문제 되고, 병의 경우에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것을 감수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 이 문항은 칼럼 부록용으로 제작한 자체 연습 문제입니다.